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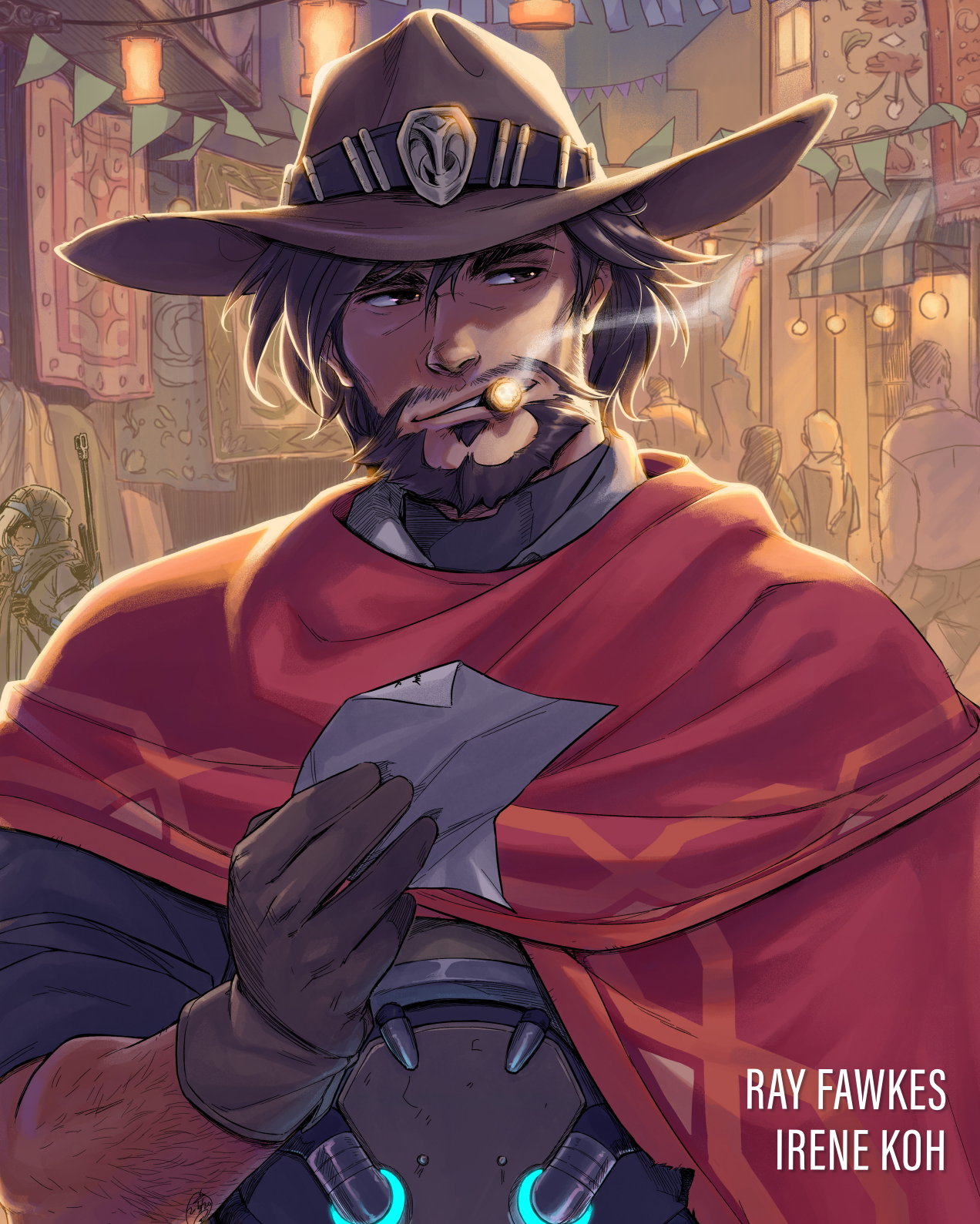


BILZARD
ENTERTAINMENT

#1/5

OVERWATCH®

새로운 피



RAY FAWKES
IRENE KOH



새로운 피

#1/5



오버워치가 해체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, 세상은 부조리와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권력에 신음하고 있습니다. 혼돈과 파괴가 만연한 가운데, 콜 캐서디는 오버워치에 다시 합류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. 그러나 오버워치의 몰락에 얽힌 기억이 여전히 그를 움아매고 있습니다...

글 *RAY FAWKES* 번역 *BLIZZARD LOCALIZATION* 그림 *IRENE KOH*
채색 *SUZANNE GEARY* 식자 *DERON BENNETT* 표지 *IRENE KOH*

다크 호스 코믹스

대표 및 발행인 *MIKE RICHARDSON* 선임 편집자 *PHILIP R. SIMON* 부 편집자 *JUDY KHUU*
보조 편집자 *ROSE WEITZ* 디자이너 *PATRICK SATTERFIELD* 디지털 아트 테크니션 *ALLYSON HALLER*

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편집 팀

수석 편집자 *CHLOE FRABONI* 프로듀서 *FELICE HUANG, BRIANNE MESSINA, DEREK ROSENBERG*
소비자 제품 디렉터 *BYRON PARNELL* 북 아트 & 디자인 매니저 *BETSY PETERSCHMIDT*
크리에이티브 자문 *MADI BUCKINGHAM, JEFF CHAMBERLAIN, MICHAEL CHU, SEAN COPELAND, JEFF KAPLAN, AARON KELLER, GEORGE KRSTIC, ARNOLD TSANG, ALYSSA WONG*



도움 주신 분 *DAVID SEEHOLZER*

[DarkHorse.com](#) [Facebook.com/DarkHorseComics](#) [Twitter.com/DarkHorseComics](#)

오버워치: 새로운 피 #1
OVERWATCH® © 2021 Blizzard Entertainment, Inc.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, Inc.에 있습니다.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, Inc.의 상표이고 Blizzard Entertainment는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. Dark Horse Comics®와 Dark Horse 로고는 여러 카테고리 및 국가에서 등록된 Dark Horse Comics LLC의 상표입니다. 모든 권리는 Dark Horse Comics LLC에 있습니다. Dark Horse Comic LLC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발행물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. 본 발행물에 등장하는 이름, 인물, 장소 및 사건은 저자의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허구로서 사용됩니다. 풍자의 의도가 없는 실존 인물(생존 여부와 무관), 사건, 기관, 장소와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.

미국, 66번 국도.

해가 지고 있다.
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나.

일은 끝났다. 뭔가 생각할
거리도 있는 건가? 돌아가야 할
곳이 있는 사람 같잖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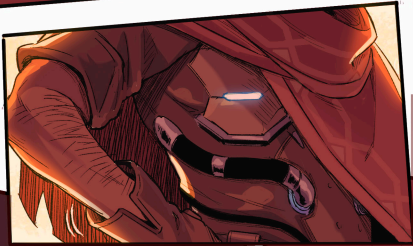
지금은 석양을 향해
달려가야 할 때인데.





여기 나오기 직전에
이걸 받았다.

"매력덩어리. 애기 좀 하지." 먼 나라의
좌표와 함께 그런 말이 적혀 있었다.



요즘 이 세상이
돌아가는 꼴을 보면...



...무슨 일이 일어나고
있다. 상황이 심각해.

넌 천둥이
몰아칠 때 꼬리를
말고 달아나는
녀석이었나?



아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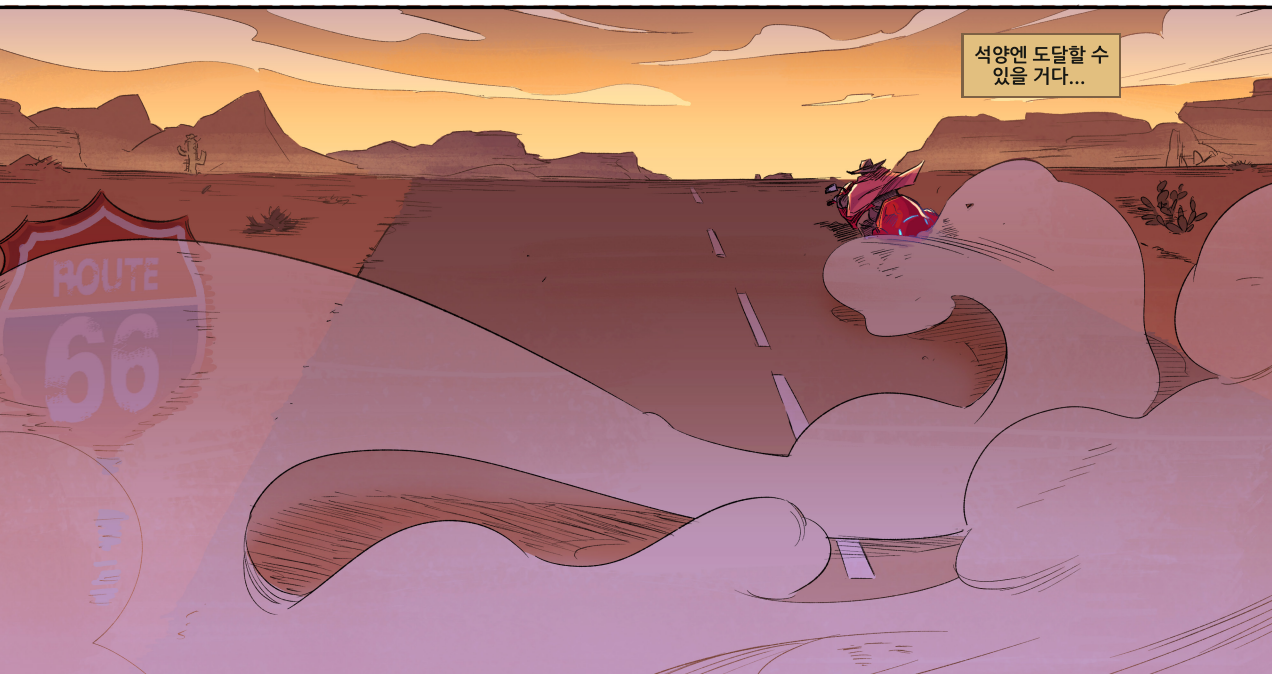
돌아가서 지금껏
해왔던 일을 해야겠다.



그 전에 이것부터
처리하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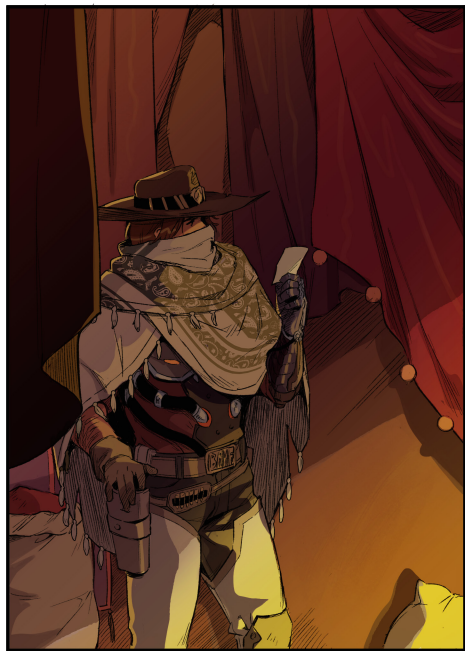
이 세상이 지옥으로
떨어지고 있는데, 이런
쪽지까지 받다니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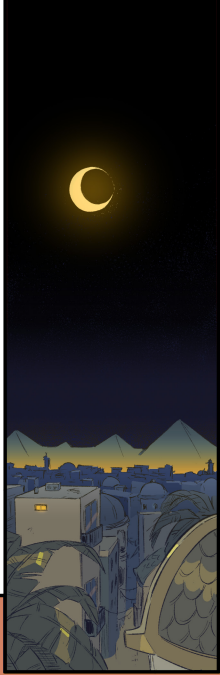
석양엔 도달할 수
있을 거다...

...오늘은 아니지만.

이집트 카이로.







"애기 좀 해 봐."
아나는 말했다.

그래서 우리는
애기했다. 한밤중까지
오래도록.



넌 네가 참 많이 변했다고
생각했겠지. 할 얘기가 정말
많다고 생각했을 거다.

오버워치가 해체된
후 그토록 오랫동안,
음지에서 용병으로
범망을 피해 살아 왔으니...

하지만 여기 아나와 함께
앉아 있으니 그 모든 게
희미한 꿈 같았다.

다시 가족과
함께하는 것
같았다.



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
당연한 일 같았다.



젠장, 그게
맞을지도 모른다.
삶은 이래야 한다.

그리고 옛날
생각을 하고
있으려니...





오버워치 소집 명령이 내려왔어.

넌 돌아갈 테지. 안 그래?



글쎄요.



아닐지도 모르지요.

당신은 어쩔 거죠?



소집 명령이 내려온 후 탈론이 걱정스러울 만큼 많은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켰어. 지금 예전 오버워치 요원들을 사냥하고 있어.

지브롤터 감시 기지에도 적이 침입해서 요원 정보를 훔쳐 갔다는 소문이 있어... 탈론의 속셈이 뭔진 몰라도, 오버워치가 돌아오는 걸 원치 않는 모양이야.



더더욱 돌아가야 하겠군요.



최근 너 말고도 옛 대원들을 또 만나 봤어.

추억은... 그냥 물어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. 내 세대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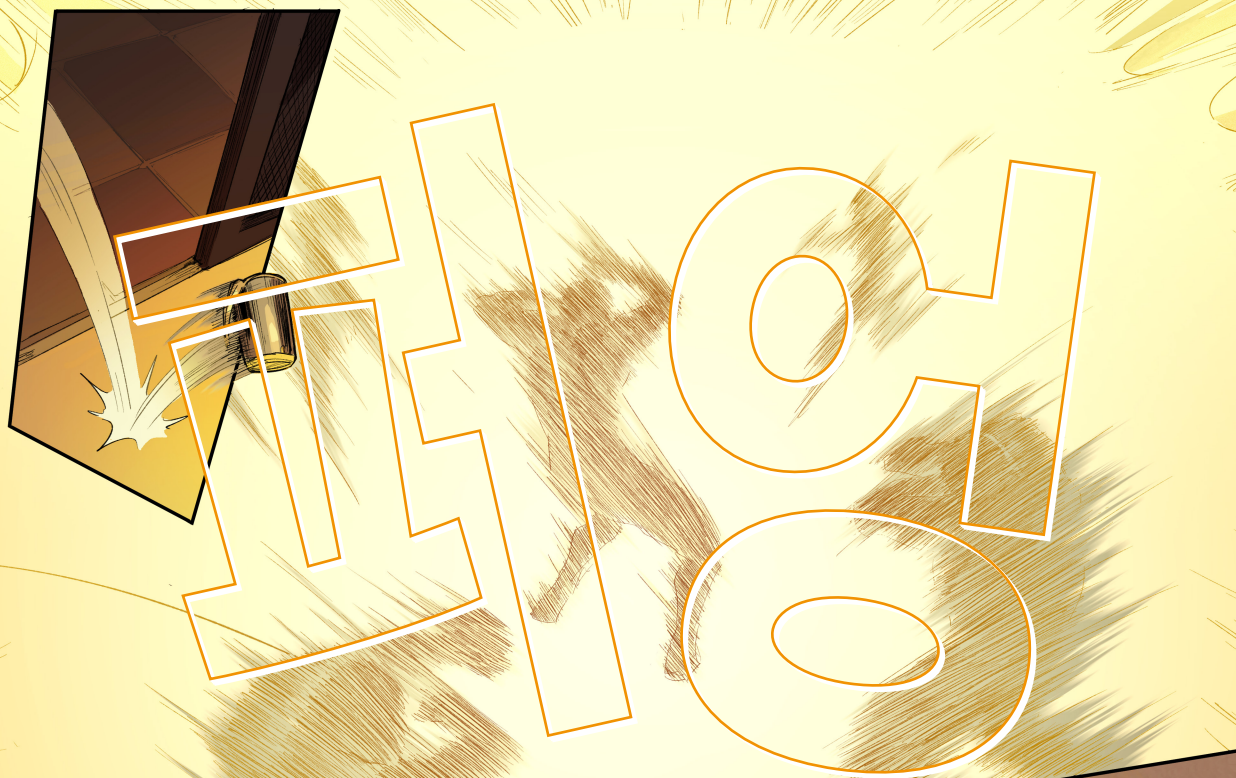
오버워치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.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.



그게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거니?

과거를 반복하는 거?







게다가 매력적이고, 적응력과 잠재력까지.

탕

7시 방향. 잡았습니다.



네 6시 방향.

두윳



거칠게 행동했지만, 네 삶이 감옥 같다는 건 나도 알 수 있었어.

이 시장을 잘 아시겠죠.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?



이쪽이야.



블랙워치에
합류한 이후로는 절박한
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만
했지.



가자!



블랙워치가 어긋나고
나서는 네 모든 것이 다시
붕괴되기 시작했어.
이제는...

아냐,
지금은 이럴
때가--



얼마나 더
가야 하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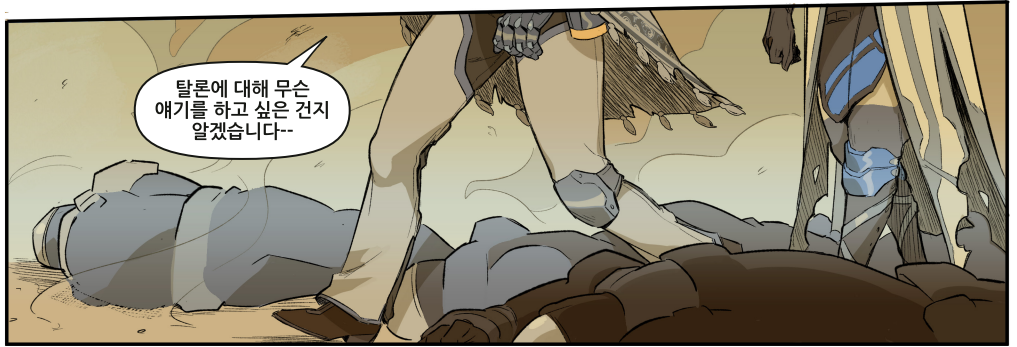


저쪽
향신료 가게만
통과하면 돼.

저기만
지나가면
집으로 돌아갈
수 있어.

제 옆으로
오세요...







아나를 보니 예전 일이 떠올랐다. 아나처럼 좋은 사람들이 널 지켜 주던 때.

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던 때.



예전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.

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?



새로운 녀석들을 몇 명 찾아서, 아나가 해 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보살펴 준다면.

넌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...



...좋은 팀을 꾸리는 법은 잘 아니까.

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?

여기야...



내 은신처, 사막에도 하나 있었는데, 지금은 노출됐어. 이걸 예비용이었고.

솔직히 말하면 몇 개 더 있지.

하!



탈론에 관한 말씀이 사실이었군요.

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?



나도 그렇게 생각해.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.

혼돈은 혼돈을 낳지.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누군가 있을지도 모르고, 어쩌면 폭풍이 깨어나는 걸 느낀 기회주의자들의 소행인지도 몰라...



자. 널 위해 준비해 둔 파일이야. 내가 지금까지 감시해 온 전 세계적 위협의 자세한 정보와 각종 자료, 그 밖의 정보까지 넣어 뒀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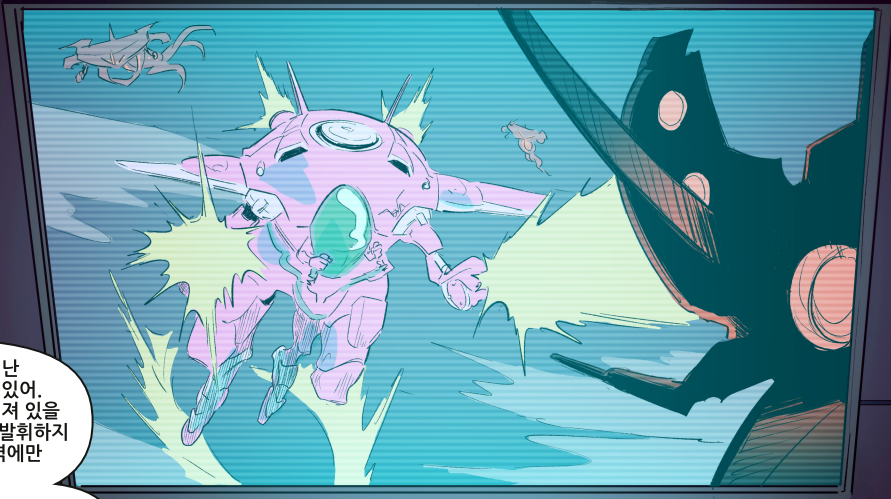
수많은 위협이, 수많은 적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.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시작되는지 알아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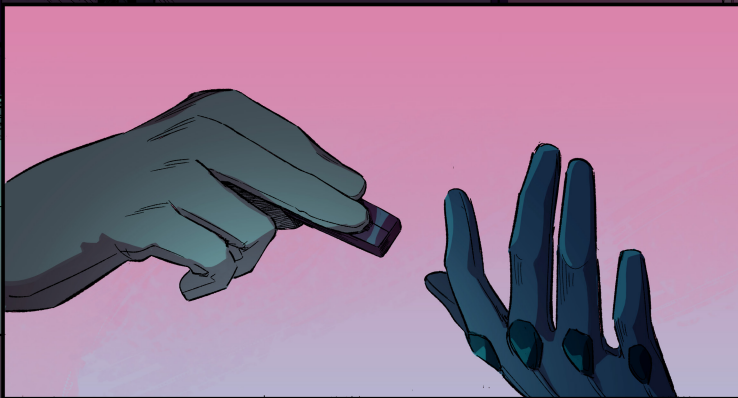
영웅이
태어나지.

세상에는 이미 뛰어난
사람들이 힘껏 싸우고 있어.
하지만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을
뿐이라,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
못한 채 각자 자기 지역에만
머무르고 있지.

너라면 힘을
합치고 전투에서
승리하는 법을
가르쳐 줄 수 있을
거야.

내가 널 여기로
부른 건 누군가 그들을
이끌어야 하기 때문이야.
이 세계를 구하고, 더 나은
세계를 일구어 내야
하니까. 너라면 그럴 수
있다고 믿는다.







오버워치가 옳은 길을 가려면 정말 새로운 피가 필요할지도 모른다. 다른 사람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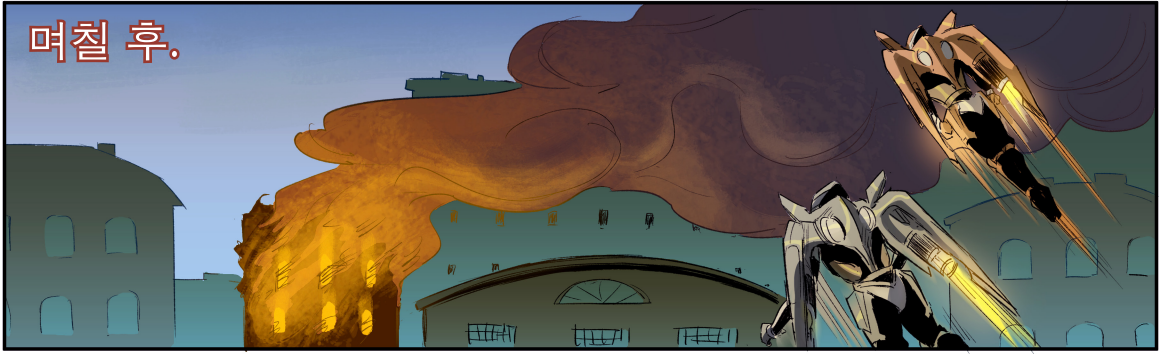
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팀을 꾸릴 때가 된 건지도 모른다.

어쩌면...

어쩌면 너야말로 이번 일의 책임자인지도 모른다.



며칠 후.



지평선에 연기가 피어오른다.
어떤 적이든 상대할 준비를 마친
헬릭스 장교들의 날개가
한 무리의 천사처럼 하늘을 누빈다.



저들이 명단의
첫 번째 사람에게로
인도할 것이다.

솔직히 아나가 그녀 이름을 포함시켜
둔 걸 보고 깜짝 놀랐다. 물론 아나
생각이 틀렸기 때문은 아니다.
이보다 더한 적임자는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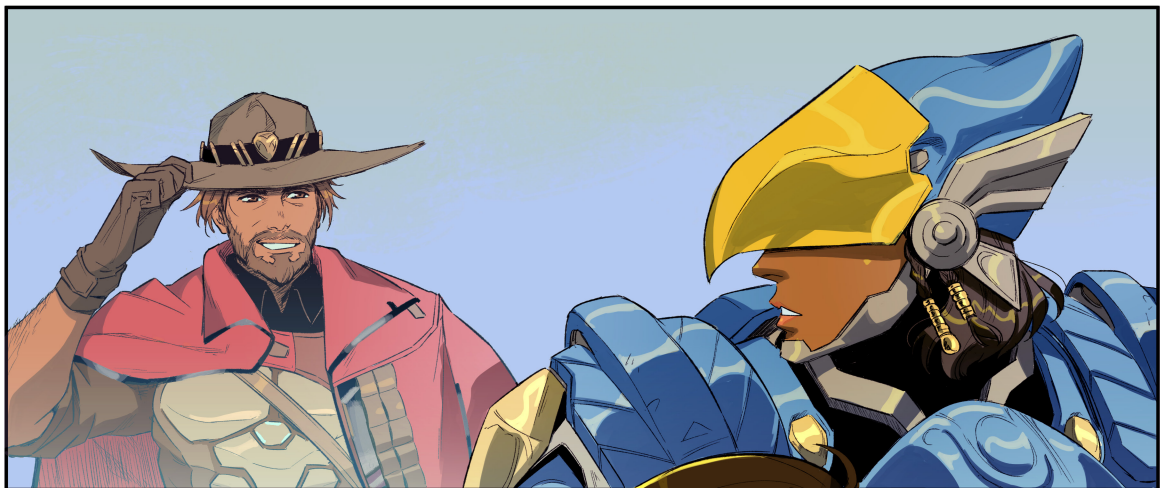


하지만 사연이
있으니까.



실례.





어--?



여기엔 어떤
일이시죠?



다음 편에서 계속



다음 편:

캐서디는 카이로에서 파라를 만나 오버워치에 합류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만, 파라는 어머니와의 복잡한 과거 때문에 그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캐서디가 어머니와 딸의 만남을 주선하지만, 옛 기억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만이 다시금 떠오릅니다. 적의 기습 공격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면서, 어린 마음을 달랠 여유 따위는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.